

2008 새해설계 ⑧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포천연합회장 최명자

단위농협 소속 여성모임으로 농촌과 도시 相生 도모

“관계기관의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은 각 단위농협에 조직된 여성 모임이다.

관내 7개 농협에 조직된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이하 고향주부모임) 포천연합회는 영북농협 고향주부모임 최명자(55·사진)회장이 맡고 있다.

최 회장은 관내 7개 고향주부모임을 대표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3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고향주부모임은 어르신들을 위한 발맞추기 봉사, 시설을 찾아 목욕봉사, 결식아동을 위한 김장은 물론 독거노인들의 밑반찬을 만들어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다.

고향주부모임 연합은 매월 1회 월례회의를 통해 각 농협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업무를 공유하고 농협중앙회 포천시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시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일손돕기와 자체행사에 고향주부모임이 적극 참여해 지원하고 있다.

영북농협의 경우, 결식아동돕기 기를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하여 매월 1회 두부를 제작하여 판매하고 있다. 또 농가일손돕기에서 받은 수당을 포함하여 관내 어려운 결식아동들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영북농협의 경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할 수 있는 장담그기 행사를 마련해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 북서농협 고향주부모임과 인연을 맺어 시작하게 되어 매년 장담그기와 장다리기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서농협에서 100말을 담았으며 4월 24일에는 장다리기 행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된 것이 안타깝다고 한다. 포천시에서도 적극 홍보해 나서 주기를 바라고 포천신문에서도 홍보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재배한 콩을 재료로 하여 만든 된장과 고추장이 서울 시민들의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홍보를 기대하고 있다.

최 회장은 또 3월에는 장 담그기 체험행사, 4월에는 장다리기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등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고향주부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조선곰탕 이병구 대표 홀인원

골프입문 1년만에 싱글 골퍼로 기록

골프입문 1년 만에 홀인원을 하고 싱글을 달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이병구(43·사진)대표다.

이 대표는 2006년 12월 골프에 입문해 조우회 등 3개 단체 회원으로 골퍼를 즐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아도니스 골프장 동코스 2번 par5 홀에서 이글을 기록하고 같은 코스 3번 par3홀(145yard)에서 8번 아이언으로 페이드샷한 볼이 홀 40cm 전에 떨어져 오르막 경사를 타고 홀 안으로 빨려 들어가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이글과 홀인원 등의 기록으로 동코스 35타, 서코스 44타 합계 79타를 기록해 첫 싱글을 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관내 CEO모임인 조우회, 대진대 어울림회, 메트로연승장모임 등 3개 동호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는 퍼터로 그린에 올라가면 1~2 퍼트로 홀 아웃을 하고 있다.

홀인원과 싱글을 기록한 이 대표는 “주변사람들이 많이 격려해주고 조언해준 것이 도움이 되었다”며 “이날 동반자들이 모두 싱글을 기록한 바 있는 분들

이어서 큰 힘을 받은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선곰탕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현재 10여개의 점포를 경영하고 있는 이 대표는 “포천시에서 개최되는 골퍼대회에 참가하고 어느 정도 실력이 갖추어지면 아마추어대회에도 참가하고 싶다”고 계획을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주부이야기

웃음을 만드는 멋진 곳 도평2리 경로당 노인건강운동교실

이동까지 시원스럽게 쭉 뻗은 길을 달려 가다보면 백운계곡 가는 길에 남자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따라 가다보니 이동면의 도평2리 보건소 2층의 경로당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증진사업의 하나인 노인 건강 운동강습교실에서 나오는 웃음소리다.

지난 1월부터 시작된 웃음과 신바람 건강 웃음 체조를 함께 한 어르신들의 표정엔 유치원생들의 어릿광스러운 모습과 해맑게 웃어주는 그 분위기는 바로 실버 유치원생의 모습이다.

시원한 모습과 화사하고 환한 모습의 도평 보건지소소의 김가현 소장님의 열정과 진심어린 효

심에서 얻어진 모습이라 더 감동을 가지게 한다.

동절기라 뚜렷하게 할 것은 없는데...하며 고민하다 웃음과 건강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다 경로당 회장님과 함께 의논해서 웃음 건강 교실을 신청했다.

어르신들 모시기가 쉽지않은 않았지만 그곳의 회장(김성태)님과 총무님은 3개월 동안 제대로 외출도 하지 못 하신채 소장님과 언제나 열정을 쏟아 부으셨다.

소장님의 열정이 웃음치료사 자격증도 취득하였고 웃음 신바람건강웃음체조 강사(김 순희)와 함께 시시 때때로 웃음의 중요성

웃음의 주는 효과, 실버 레크레이션과 웃음 신바람 건강웃음체조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열게 되었다.

마음은 혼자 열지 못한다. 같이 한다는 것 믿음을 준다라는 것이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이런 어르신들과의 대면은 자연스럽게 머릿위로 하트를 그려줄 수 있는 분위기로 전환되었지만 아쉽게도 어르신들과의 약속된 감성이 끝나 버려 그 마음 그대로 지낼 수 있을 지 걱정스럽기도 한다.

3개월 내내 지켜보던 진료소 소장님의 열정으로 봉헌 진정한 어르신들 모시기도 애정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것임을 안다.

남자 어르신들의 특별한 웃음 신바람 건강웃음체조 시간이 행복이고 행복이 있을 때 새삼 느끼게 해준 감사시간이라 더 없이 애착을 갖게 했다.

웃음은 여자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쩌면 저 자신도 여자 어르신들의 신나는 감성을 인지했지만 이번 도평2리 경로당으로 인해 남자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웃음꽃이 만발 할 수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해준 곳이기에 감사한다.



김순희 주부명예기자단 부장

드라마에 푹 빠지다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보게 된 TV 아침 드라마가 나를 푹 붙들었다. MBC 아침드라마 '그래도 좋아' 보게 되면서 그 다음 이야기 궁금해서 하루 종일 생각이 난다. 출근을 서둘러야 할 시간인데도 아들 녀석을 지각생으로 만들면서까지 드라마 앞에서 무너지니 중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수요일에는 아들이 유치원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는데 그 내용이 너무도 애절하고 슬퍼서 평평 울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엄마가 이상했는지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고 아들한테는 미안했지나 드라마에 빠져 실컷 울고 나니 속이 후련해졌다.

드라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륜으로 낳은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가 한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그 딸의 인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지만 자기의 욕심으로 약점을 저지르면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하게 되는 딸의 모습 앞에서 엄마로써 죄인처럼 바라보아야 하는 아픔을 애절하게 전개하고 있다.

풍족한 환경, 부모의 사랑 등 남부럽지 않은 것을 가졌지만 언니 내은이에 대한 시기 질투심으로 급기야는 언니를 죽일 음모까지 꾸미고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 시누이까지 죽음으로 내몰게 되는 약행을 저지르고 만다.

10개를 가진 부자가 1개를 가진 자의 것을 빼앗지 못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소유란 만족이 없음을 느낀다. 만족이란 마음먹기에 따라서 걸인

이라도 느낄 수 있는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내가 부자다."라고 자기 최면을 걸면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드라마의 주인공인 명지가 마지막에는 모든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괴로워한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 하지만 이미 저 세상으로 가버린 여동생이 있기에 남편조차도 분노와 복수심으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나 는 연기자의 연기력에 푹 빠졌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기만 하다.

드라마를 보면서 선행의 대가는 금방 보이지 않지만 자기가 행한 악행은 반드시 그 벌을 받게 됨을 보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통쾌함을 느끼게 한다.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하고 용서

를 구하는 명지에게 측은함을 느끼기도 한다.

오늘은 신랑이 저녁 먹고 낚시대를 어루만지고 있다. 거추장스럽게 낚시대를 펼쳐 놓는다 해도 용납해야 한다. 그리고 낚시 방승을 보면서 "아, 좋다! 우와, 크다!" 라고 떠들어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도 내일 아침에 드라마를 봐야 하고 공장에 조금 늦게 출근해서 구박받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중독은 서로 허락해야 하리라.

드라마가 거의 끝나간다. 한동안 허전함과 드라마의 여운이 남겠지. 다음에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신랑 눈치 보지 않아야 되는 중독거리를 찾아야겠다.



유정자 주부명예기자단 기사

태국여행을 다녀와서

몇 일전부터 들뜬 기분으로 새봄을 맞이하였다. 한여름 웃을 기쁨에 행거며 물놀이 할 생각이 빙그레 웃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일행 여섯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다.

담당한 비행기가 어두운 밤하늘을 지나기 태평양을 통과하듯 태국을 향해 하얗게 날아가는 동안, 비좁은 의자에 앉아서 남편과 함께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기내식으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어느덧 우리는 태국의 수도 방콕에 도착했다.

방콕시간으로 새벽1시, 우리나라가 2시간 빠르게 사계절이 더운 나라로 공방에 내리자 후덥지근한 공기로 답답했다.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현지 가이드를 만나 버스에 올랐다.

이제로운 도시의 밤 풍경, 즐비한 8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 밤거리를 환히 비추는 네온사인, 더운 기후로 인해 낮보다 밤 문화가 발달한, 가히 동남아시아 관광국이라고 불릴만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결혼기념일을 맞이한 지난해, 회수세를 축하하기 위해 여행사사장님께서 준비해주신 케이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첫날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다음날 아침, 왕궁에서 5년 전에 만났던 왕궁 가이드 성룡을 다시 만나고 보니 그 때 함께 했던 여정이 다시금 떠올랐다. 새로운 한국 유행어를 열심히 메모했던 그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지역사투리, 속담까지 아주 많은 한국어를 여행오신 분들에게 배웠다고 한다.

우리나라말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을 성룡

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다. 연휴에도 열심히 공부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하여 꿈을 이루길 소망해본다.

은 공이 금으로 둘러싸여진 왕궁 사원에는 라미9세의 누님을 문상하러 온 김정정장의 태국인들과 여행객으로 가득 했다.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아진지 여겨지거나 "사세요! 싸요, 천원입니다."하는 어설픈 우리말이 들려왔다.

한낮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 버스 에어컨바람으로 무더위를 피했다. 반대편 차선의 어수선한 도로와 낮은 건물들은 더위를 한층 더 답답하게 했다.

내가 태국인이려면 건물들을 밝게 칠하여 화사하고 깨끗이 정돈하여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 다시 또 오고 싶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이다.

차량 밖 거리 사람의 모습은 볼 수 없고 곳곳에 붙어 있는 왕과 왕비의 사진을 통해 국민들이 왕을 신임하고 존경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파타야에서 게이들의 춤, 노래, 율동으로 기획된 쇼를 관람하고 늦은 시간 지치고 피곤한 몸을 태국 전통 마사지로 풀었다.

일행은 산호섬에서 바나나 보트 타고 가산탑과 동교탑 나뉘어 도착점을 빨리 돌아오는 시합을 했다. 연휴아빠가 바다에서 뛰는 모습은 목도리도마뱀을 연상케 했으며 동교탑 코치가 된 희수 아빠의 익살스런 유머에 우린 한바탕 웃었다.

길고 짧았던 3박5일 동안 여행의 아쉬움을 뒤로하며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이번 여행은 바쁘고 정신없이 지나간 겨울을 뒤돌아보며, 새로운 봄을 맞이하는 출발의 계기가 되었다. 돌아가 다시 일상 속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다독고 가꾸어는 새로운 힘이 되어 줄 것이다.



강옥자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우리나라말 배우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열심히 공부했을 성룡



요즘 생활주변에서 선택(選擇)과 집중(集中)이란 말들을 많이 한다. 선택과 집중이란 말은 표현(表現)만 다를 뿐 사실은 하나의 현상(現象)을 놓고 하는 말이다. 어느 것을 하나 선택한다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 하나에 마음을 쏟는 것이다. 무엇에 집중한다는 것도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그 한곳에 마음을 쏟는 것이다. 마음이 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하나를 잡는 것이고 그 하나에 눈길이 가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를 지향(指向)하는 마음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로 나타난다.

선택과 집중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려는 것이다. 정신(精神)을 한 곳으로 모으려고 모으는 것이다. 정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한곳에 올인(all in)하면 못 이룰 일이 없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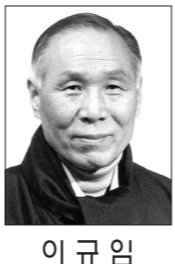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수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정신(精神)이 한곳에 모이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시선을 한 곳에 모으면 실



이규임 인곡명상재직역외 명예회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옛그제 학교에 입학하여 조그마하던 네가 어느새 엄마보다 더 크게 훌쩍 자라 고등학교의 선택 길에 섰구나. 건강하고 멋지게 자라준 우리 아들이 대견스러워 몇 자 적어본다.

정빈아, 언제나 장난 끼 섞인 엄마의 말이 어느 때 잔소리로 들려 짜증났겠지만 그래도 너의 나이를 거쳐 지나온 인생 선배의 충고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운동을 하면서 허리가 아파 매일 신경 쓰고 있는 너를 생각하

면 이 엄마는 늘 안쓰럽고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플 뿐이다. 하지만 정빈아, 너의 노력과 엄마의 기도로 힘써 보자구나. 노력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노력하면 너의 이름도 극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노력 또 노력하기를 바랄뿐이다.

엄마 아빠가 네가 되어줄 수는 없지만 네가 가는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걸림돌도 치워주고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 조용히 응원

을 보내며, 아들 화이팅!

너의 곁에는 널 사랑하는 사람들과 엄마 아빠 정은이가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너의 꿈을 향해 저 높은 하늘을 합쳐 날아보길 바란다. 사랑하는 아들, 널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엄마가.



김은숙 주부명예기자